

## 제32회 전국도서관주간 행사결과보고

도서관(자료실)이 국민들의 문화복지증진과 문화향수권 신장에 필요한 기관임을 인식시키고, 정보화·지방화 시대를 대비한 열린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의 각 급 도서관에서는 1996년 4월 12일(금)부터 18일(목)까지 “전국도서관주간”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전국도서관주간”에 각 급 도서관은 가두캠페인, 입간판·현수막 설치, 유선방송과 생활정보신문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문화정보센터의 중심점이 되는 도서관의 역할을 홍보하였으며, 각종 전시회, 교양강좌, 명화 및 명곡감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이 학생들의 공부방 역할만을 하는 곳이 아닌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문화 공간임을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주부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양 프로그램으로는 “가정생활과 법률”(서울특별시립도봉도서관), “메이크업 강좌”(서울특별시립도봉도서관), “단전호흡교실”(부산광역시립사하도서관), “부녀독서회문화유산답사”(부산광역시립구포도서관), “기상사진전”(서울특별시립종로

도서관), “북한영화상영”(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등이 있었으며, “색종이접기대회”(서울특별시립종로도서관), “독후감상화그리기대회”(울산동부도서관) 등을 개최하여 어린이들에게 도서관을 즐겁고 재미있는 장소로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부산서동도서관, 대전학생도서관, 광주사직도서관 등은 직장문고 및 이동문고를 운영하여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과 독서인구저변확대를 꾀하였으며, 울산남부도서관·울산동부도서관은

지역주민으로 부터 기증 받은 도서 중 복본인 도서를, 도서를 구입하기 어려운 벽지학교와 사회복지관에 기증하였다.

대구광역시립대봉도서관, 대구광역시립북부도서관, 인천광역시부평도서관, 서울특별시립용산도서관은 “이용자 설문

조사” “이용자 장서구성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 도서관 이용시 불편한 점, 개선할 사항 등을 찾아내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각 도서관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직원간담회 자리를 갖기도 하였다.

